



표지사진 : 2000년 11월 라진·선봉지역 탁아소 아기들입니다. 통통한 볼을 보니 가슴이 뿌듯해 집니다.

JTS 통권 27호 2001년 1·2월

펴낸날 : 2001. 1. 2

펴낸이 : 법 루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윤기희, 김애경, 최양희, 이순희

이상임, 김경내(부산JTS)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http://www.jts.or.kr>

인도

- 4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HAPPY New Year!

북한

- 6 지금 북한에서는
리진·선봉 유치원, 탁아소 방문보고서

몽골

- 8 몽골에서 온 소식
2000년 몽골사업을 되돌아보며

청소년

- 10 아름다운 청소년
청소년과 말을 할때

그리고

- 12 후원의 소리
*아름다운 삶을 만나라
청소년 실성수련 공양바라지를 마치며*
- 15 활동보고 및 안내
- 17 신규회원 명단
- 19 결연단체현황
- 24 한해를 보내며
- 26 후원프로그램 안내

HAPPY NEW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새해에는 수자타아카데미가 벌써 개교 7주년을 맞이하고, 10학년 졸업반이 생깁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도움을 주시는 한국 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계속 마을마다 유치원이 생기고 상급생 아이들은 유치원 교사가 되어 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에서 전해오는 사랑의 뜻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이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늘 행복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 수자타에서 선주 이덕아 올림.



안녕하세요 마두리입니다.

12월이면 한국은 얼음도 얼고 눈도 내리고.. 인도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아침저녁으로 엄청 춥습니다. 이틀동안 마노즈와 함께 마을 유치원을 돌았습니다. 방갈루가, 가왈비가, 모리탈..산을 오르면서는 “아침에는 춥더니 낮에는 또 왜이리 덥지?” 하면서 날씨 불평을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유치원에 도착하니 언제나 처럼 반갑게 학생들이 일어서서 “나마스떼 시스터” 하고 반겨줍니다. 함께 인사를 하면서 보이는 건 희미한 아랫도리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짧은 남색바지

에 흰 셔츠를 입고있는 아이들. 낡은 사리하나 걸치고 어머니회 모임에 참석한다고 앉아 있는 어머니들. 자기가 걸친 숲을 말없이 벗어주는 모리탈 마을의 꼬말리아 선생님. 이렇게 돌다가 수자타에 돌아오면 날씨 불평하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무슨 일을 계획해서 이 사람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JTS 식구들 한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 햇살이 되어 주시기를...

- 인도 가야에서 정정임

New Year!



존경하는 분들께

나마스떼! 진심으로 새해가 밝아옴을 축하하며 새해에는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항상 감사하며 그 힘들이 우리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저도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과 어머니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보냅니다.

- 마을개발 프로그램 **아니따꾸마리**

존경하는 모든 분들께

저의 모든 사랑을 모아 나마스떼!
진심으로 새해가 밝아옴을 축하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겐 아주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들에는 노란 꽃 두 종류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처럼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여러분이 행하는 진정한 기쁨을 저도 알아가며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후원이 참된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숙지타이카데미 교장 **쁘리양카**

존경하는 후원회원 여러분께

Happy new year! 지금 이곳은 겨울철입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지금은 시험기간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1월에 학교 개교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니 부디 이곳에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인도친구들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오실 것을 희망합니다.

- 숙지타이카데미 8학년 **아르준**

라진·선봉 유치원, 탁아소 방문 보고서

- 일 시: 2000년 11월 14일~18일 (4박 5일)
- 지원물자: 사탕 500kg (1인당 100g으로 포장하여 5,000개)



10월에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늦추어져 11월 중순경에야 갈 수 있었다. 11월 14일 새벽에 아이들에게 나눠줄 사탕을 가지고 출발하여 밤중에 라진 숙소에 도착했다. 11월 15일~16일은 라진시 유치원, 탁아소(21개, 3172명)를 방문하였고, 17일~18일에는 선봉읍 유치원, 탁아소(21개, 1975명)를 방문하여 총 42개 유치원, 탁아소를 방문하였다.

15일 오전에 3곳을 방문하고 점심 먹고 다른 곳으로 가니 아이들 낮잠시간이었다. 오후2시까지 낮잠시간인데 아이들이 깰까봐 선생님들이 싫어했다. 아이들 자는 모습만 보고 나왔다. 97, 98년도에 갔을 때는 갓난아기들이 돌이 지나도 고개를 못 드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두 달 된 아기들도 고개를 뺏뺏이 잘 들고 있었다. 돌이 된 아이들은 씹씹하게 기어다니고 있었다. 젓먹이 아기들은 99년도에 지원한 젓병과 젓꼭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한 달에 분유, 설탕 섞은 것으로 3kg 주는데 어떤가 물으

니 질량이 좋고 량도 충분하다고 한다. 탁아소 선생님들은 한 칸에 3~4명, 아이들은 한 칸에 15~20여명이 있다. 선생님 1인당 아이들 5인인 셈이다.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에 갔을 때는 아이들과 선생님들하고 말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우리 영양식이 맛있고 좋다고 한다. 영양식을 가루로 나눠주면 물에 타먹기도 하고, 반죽해서 떡으로도 해먹고, 튀겨서 파배기도 해 먹이고 있었다. 떡은 영양식에 그냥 물만 넣어서 반죽한 것인데 쫄깃쫄깃하고 포만감을 주는 것이었다. 반죽한 것을 얇게 밀어서 모양을 만들어 튀기면 파배기가 되는데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 “유치원에 오면 뭐가 좋으니?” 하고 물으니 “떡, 파배기, 우유물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집에는 그렇게 없습시다. 못 먹습시다.” 하고 말한다.

선봉을 유치원에 6세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떡을 안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너는 왜 떡을 안먹니?” 하니 “넘구지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집에서 밥을 싸와서 먹고 떡은 집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내 동생이 떡 가져오다가 문에서 기다립니다. 집에 가면 동생과 어우러 먹습시다” “그럼 집에 가면 넘어갑니까?” 하니 “예 넘어갑시다” 한다.

대체적으로 이전보다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 아이들이 웃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 밑에 때도 없고 코 흘리거나 피부 허는 아이들이 없어졌다. 이번에 4천명 정도 아이들을 보았는데 피부 허는 아이들이 3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에는 유치원, 탁아소 방문하면 선생님들이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 좋다는 소리만 하고 요구가 적어졌다. 선생님들은 날마다 아이들이 쑥쑥 커가고 좋아지는 것을 보니 기분이 난다고 한다. 아직까지 난방이 충분하지 못하니 담요 요구가 있었고 체중계 요구가 있었을 뿐이다.

위원장은 “97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다 쓰러지는 것을 제이티에스에서 살려줬다. 제이티에스는 확실히 알뜰하게 어린아이들을 위한다. 우유가루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복잡하지만 한국에서 들여오는데 그것이 질량이 훨씬 좋다. 이런걸 봐도 제이티에스가 어린이를 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며 감사해 한다.



2000년 몽골 사업을 되돌아보며

최정연 (JTS 몽고파견 실무자)

♣ 1차 밀가루 36톤 지원

: 2000년 5월, 6월 - 오브르항가이 아이막 하르호른 슝 10개 박 900가구

지난해 겨울 폭설로 서남부 몽골에 가축의 30~50%이 죽어, 유목으로 기본 생활을 이어가는 유목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한국 제이티에스는 3월에 직접 서부 오브르항가이 아이막 지역을 조사하고, 5월에 오브르항가이 아이막 하르호른 슝 (옛 징기스칸 시대의 수도)에 밀가루를 지원했다.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5월말부터 6월말까지 밀가루 36톤을 한 가구 당 평균 40kg씩 총 1200가구 중 900가구에, 5톤 트럭에 싣고 직접 전달했다. 일하면서는 밀가루를 창고에서 트럭으로 또, 트럭에서 유목민들 게르에 나르는데 고된 인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마다 사람들 동원하는 것이 어려워 나도 같이 나르고 매번 다른 사람들 동원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또 양털로 직접 만든 토끼 인형도 선물 받고, 너무 고마워서 우는 할머니도 만나고, 안아주고 뽀뽀해 주기도하고...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은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박들의 피해 목민들 이었다.

그렇게 계속 한달 동안 초원을 달리면서 인상깊었던 것은, 풀이 송송한 흙바닥의 아주 가난한 게르에서도 정갈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옴마니반메흠을 하는 노인 분들이었다. 그분들은 내가 다니는 동안에 무사히 다니라고 주문을 외워주기도 하고, 스님들 푸른 형경천을 주셨다. 또, 어느 새벽에는 가도가도 끝없는 대지를 달리다 먼 지평선 위로 해가 뜨는 걸 본 적이 있다. 흙먼지 희뿌연 마른 황야에 아무 소리 없이, 아니 모든 소리 다 숨 죽이는 힘으로 떠올랐다. 너무도 크고 붉디붉어서 불새가 있으면 저렇지 않을까 싶었다. 큰 날개 짓 한 번이면 저 멀리 날아 새는 보이지 않고 밝은 빛만 남기는 불새 같았다. 지금 생각하니, 그 노인 분들이 정성스레 외워준 옴마니반메흠과 많은 사람들의 감사 덕분에 밀가루를 무사히 다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크고 붉은 해의 감동 덕분에 그 넓은 초원을 씩씩하게 달렸던 것 같다.

♣ 2차 헌옷16톤 지원

: 2000년 8월~11월 - 도르노트 아이막 히틀링 슝 (초이발산 슝) 5개 박 744가구

자연 재해로 목민들 피해가 심한 지역은 서남부 지역이었으나, 동몽골 초이발산은 만성 빈민지역이었다. 변변한 담요도 없이 그냥 바닥에서 사는 이들이 많았고, 아이들은 또 신발과 옷이 없어 학교를 못 간다고 했다. 그래서 8월초에 NGO등록을 하고, 헌옷지원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콘테이너를 찾아서 간단사에서 옷을 포대에 넣어 정리해서 초이발산으로 달렸다. 초이발산의 옷 지원은 헌옷이나 담요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곳의 가난한 아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옷과 담요를 지원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이들을 보니, 시에서 조사해서 보여준 것보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아이들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에 너무도 낡은 옷과 신발에 아이들 몸이 맞춰 사는 듯했다. 아예 신발은 신을 생각 없이 때 국물 줄줄 흐르고 다 헤진 옷으로 아이들은 몰려다니며 웃고, 나와 비디오를 구경하는데 이 콧물 투성이 꼬마들을 모아 함께 보호할 유치원이나 다른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교 갈 만한 애들은 집안 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인데, 쓰레기나 똥을 주워 모으는 애들이 종종 보였다. 또, 수도가 없기 때문에 강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하는데 이것은 좀 큰 여자 애들이 많이 했다. 그래도 돈이 없어 학용품 못 사 학교에 못 간다는 애들 중에는, 집에서 작은 초 하나로 글을 읽는 애들도 있었다. 영양이 부족해 얼굴에 마른버짐 핀 아이들, 다리가 휘어진 아이들, 나이에 비해 몸이 너무 작은 아이들, 영양실조로 힘없이 맨 바닥에 누어져 부풀은 배와 때물은 얼굴위로 파리가 오기는 아이, 먼 눈으로도 동생들과 함께 우물에 물길으러 다니는 아이들, 엄마와 함께 쓰레기 주워 자기보다 큰 집 지고 다니는 아이들, 멍한 눈에 영긴 머리카락으로 방 안에서만 있는 아이들, 맨홀에서 사는 아이들, 벽돌이 부서진 채 웅굴고 창도 없이 마치 공사장 막장 같은 곳에서 사는 아이들. 옷 받고 나서 자기 이름을 못써 찢어져 웃으며 대신 서명해 달라고 하는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을 뒤로하고 계속 여러 박들을 지원하는 동안, 역시나 자기도 달려며, 싸우고 소리치고 떼쓰는 아낙네들과 아저씨들을 만났고, 또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는 의사들이나 아이들도 보였다.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데...' 하는 맘과 '이렇게 아무 것도 없고 외지고, 무기력한데서 어떻게 이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혼란스레 자리 잡았다. 그래서 11월엔 우선 지원을 빨리 끝내고 보자는 맘에,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해서 통역도 없이 한꺼번에 8톤을 다 가지고 갔다가, 2톤은 잃어버려 숨부르 지원 계획도 실패했다. 그 와중에 또 믿고 같이 일하려 했던 사람한테서도 원망소리 듣고... 여태껏 버텨온 기력이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엔 '아! 이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보살님이 날 보살피지 않나 보다' 했지만, 결국 내가 내 맘에 일어난 여기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일에 대한 막막함을 바로 보지 못한 채 급하게 또 여러 상황에 쫓기며, 내 중심도 잃고 웃도 잃어버린 것이었다. 또 처음엔 사람들이 왜 그것도 제대로 못했냐고 야단치는 것 같고 두렵고 부끄러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으면 했다. 정말 작은 껍데기에 갇혀 있었다. 그 후, 스스로 다그치는 걸 놓으니 그르친 일의 원인이 제대로 보였다. 두려움과 자책감이 가라앉고, 여러분들 말씀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다. 이번 일로 내 안에 깊숙이 들어있던, 속 좁은 아만, 포기심, 나약함, 의지심, 분별심, 냄비뚜껑같이 얇은 심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젠 그때의 내 상황에서 그 정도로 끝난 것도 보살님 은혜인 줄 알겠고, 다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 또 많은 도반들과 스승, 부처님, 보살 님들과 함께 한배를 타고 가고 있음도 알게 되어 더욱 기쁘고 더욱 감사하다.



청소년과 말을 할 때

난승 방기연

∞ 여는 글 ∞

몇 년 전 일이다. 청소년을 위한 심리극 공연을 할 때였다.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 공연을 본 소감을 나누는 가운데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서로 달랐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은 너무 간섭이 심하고,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곁에 없어요.” 하는 식이었고, 학부모들은 “관심을 가져 주면 간섭한다고 하고, 그냥 지켜보면 관심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청소년기가 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많다. 이 때 부모들은 큰 어려움을 겪기 쉽다. 여태까지 말썽을 부리지 않고 말을 잘 들던 아이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피하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물어 보더라도 좀처럼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심지어는 크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 부모는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 해서 안달이 난다.

∞ 몸 글 ∞

청소년이 된 자녀가 있을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먼저 청소년을 알려고 해야 한다. 어른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끌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청소년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울 때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익혀야 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만약 청소년이 되어서도 어릴 때와 똑 같이 부모한테 의존한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다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어른보다 자기 또래들한테 더욱 관심이 많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도 어른들보다 친구들한테 두기 마련이다. 이것을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서 이래저래 간섭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 ‘이제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꺼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른 먼저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

다. 당당하게 부모 자신의 심정을 자녀한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강요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말이다. 강요하지 안돼 솔직한 의견과 심정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아이는 빨리 자신의 생각을 튼튼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

‘알고 받아들이고 말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된다. 먼저 말하고 가르치고 싶은 심정이 될 때에는 숨을 한 번 깊이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먼저 알리고 하는 쪽으로 돌이켜야 한다. “네가 이리이러했구나, 이제는 네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대견하구나. 그런데 이리이러한 점은 이해도 되고 반갑지만, 저러저러한 점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끈다면 자녀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힘주어 말하자면, 어른이 자기 말을 먼저 하기보다 청소년 자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받아들이는 면에서 생각해 보고 나서야 솔직한 자기 생각과 심정을 말하는 것이다. ‘① 알기, ② 받아들이기, ③ 말하기’를 잘 새겨 두어야 한다. 또한 말하기에서 혹시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이켜 볼 일이다.

∞ 마치는 글 ∞

청소년한테 다가가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먼저 상대를 알려는 마음으로 하면 쉬울 것이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너무도 어려울 것이다.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과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자기부터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열고 상대를 맞이하려 하면 뜻밖에도 청소년은 쉽게 마음을 연다.





아름다운 삶을 만나다

황영숙 (제이티에스 홍보이사)

‘우리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99년 8월에 떠난 고구려 발해 유적지 역사기행.
웅장한 백두산과 천지, 광개로대왕비와 장군총, 일송정에서 내려다본 해란강의 아름다움.
유적을 통한 옛 선조들과의 해후를, 그 혜택받음을 내내 감사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연길에서 몇몇
일행과의 양로원 체험(?)이 이렇게까지 내 삶의 방향을 급선회하게 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
었다.

그 동안 마스크를 통해 간간이 들어왔던, 하지만 곧 일상에 묻혀졌던 북한 실상이 직접 꽃제비를 만나
고, 탈북 난민을 만남으로써 확연히 그 실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자그마치 350만 명이라 하였다.

북녘에서 굶어 돌아가신 분들이....

한 가정에 평균 한 두 명씩은 돌아가셨고, 죽기 전에 밥 한 공기 먹는 게 소원이었던 어느 노모는 시집
간 딸네 집까지 가다가 너무 허기져 딸네 집 바로 눈앞 언덕 위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했다.

추운 겨울에 압록강을 넘다 제때 동상치료를 못해 마치 동강난 우리 남북한처럼 무릎아래 두 다리가
절단된 스물 한 살 탈북난민 아가씨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엄청난 충격에 숨죽여 울면서 남
북한 현실을 뼈저리게 직시할 수 있었다.

2000년 1월 인도 쿠시나가라 열반당에서 순례자 모두 발원문을 읽고 스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는 또
한번 울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스님! 스님께서는 법문만 하십시오. 곳곳에 필요한 물품은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에나 산재해 있는 게 바로 물품들이다. 탈북난민, 북한아
이들, 인도 몽고 등 물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놓이기까지 과정은 마치 어느 TV프로에서 마음에 맞는
선남선녀끼리 선이 그어져 만남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네 역할은 그 중매인과 다름 아니다. JTS에 필요
한 물품이 있을 경우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 들이 등교한 후 10시경부터 전화하기 시작하면 오후 5시까
지 계속 작업이 이루어진다. 100% 철저한 기증형태이고 내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만 전달해
주는 중간 역할이므로 어디까지나 담당하다. 사장조사를 하고 본사와 연락 후 공문을 보내는데, 보통

오십여 업체에 보내면 연락 오는 곳은 고작 서너 군데..

최선을 다하되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될듯 될듯 하다가 끝내 안 되는 경우 실망이 클 때가 많았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회사에서 물건을 주겠다고 연락이 올 경우 그것도 대박이 터질 때 그 기쁨은 아주 말할 수 없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한달 전, 파파리노와 레노마에서 모인 아동복 216박스과 빨래비누 100박스, 도드람의 돈육 캔 1톤과 쇼트닝 7.5톤이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 부둣가로 내려가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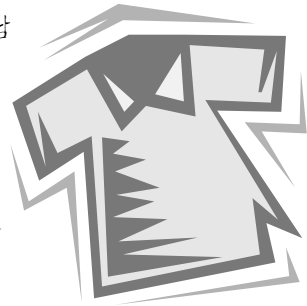
전에 현대 택배를 찾아가 취지를 알리고 어느 정도 허락을 받았지만, 차량 남는 공간에 한 두 박스 실는 ‘이웃사랑 택배’로 추진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았다. 부산 컨테이너 창고를 모색하고, 또 한편으로 서로 긴밀한 전화가 오고간 후에 현대택배는 ‘이웃사랑’을 넘어 ‘동포사랑’을 11톤과 5톤, 2.5톤 차량에 싣고 각기 다른 물류창고 네 곳에 들러 릴레이식으로 부산 컨테이너 창고에 무료 운송하기까지 과정은 마치 극적인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하지만 남북한 품질차이 때문에, 남한 상표가 붙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반입되지 못하고, 바닷가 창고에 쓸쓸히 아직 그대로 묶여있는 아동복들을 생각하면, 기름과 전기가 모자라 냉방에서 내복도 없이 추위에 떨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저 한없이 마음 아플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저 옷이 입혀져야 할텐데...

유난한 혹한 속에 웅크리고 있을 아이들을 두고 새삼스레 남북 이데올로기가 왜 말인가...

요즘은 인도 지이바카 병원에 필요한 X-Ray기와 현미경을 찾아 의료기회사와 각 대학 종합병원 등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워낙 고가이고 전반적으로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 불투명하기만 한데, 그래도 어딘가 분명하게 놓여있을 의료기를 찾아 또다시 수확기를 든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제이티에스입니다.....”





청소년 심성수련 공양바라지를 마치며

권상례(주부, 44세)

아이구 내 새끼!

세월이 조금 더 흘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즉 내 손자를 낳는다면 “아이구 내 새끼!” 하며 감동의 탄성을 지르리라

애들아 내가 너희 밥을 지어 처음 들어갔을 때 내눈에 너희 모습은 그렇게 귀여웠다. 노랑머리 무스로 이리세우고 저리 뉘우고 어색하기 그지없게 멧을 내고, 배춧잎 머리로 이마를 가리고, 그리고 누구는 공양 안내할 때 비딱하게~ 앉아서 의연한 척.. 에그그 귀여워라 내 새끼들!

그러나 그 안에 수줍음이 보였고, 순수가 보였고, 귀여움이 곱디고운 유년의 첫 내음의 향기가, 생동하는 청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 무한한 청춘이, 나를 감동하게 하였지. 아이구 내 새끼!

공양간의 10명의 뒷바라지들은 “이 음식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를 명심문으로 하여 진짜 그렇게 하였단다. 야채를 씻을 때 한번 더 씻어내고 더 깨끗하게 깎아내고 더 많은 집중력으로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할까를 연구하며 ‘내게 부처님이 오신다면’ 이 생각을 한시도 놓지 않으려고 하였단다. 한 달이나 지난 지금 모두다 잘 있는 거지? 노랑머리도 잘 길들었어? 이제 어색하지 않고 세련 좀 된 거야? 아이구 내 새끼들!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잘 있기가 우리 모두..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지바카병원 개원식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동계스와리 지역에 세워지는 Jivaka병원이 2001년 1월 10일 개원식을 갖는다. 이 병원의 완공으로 동계스와리 인근 16개 빈민마을의 주민들은 보다 넓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원식에는 비하르 주지사와 태국 환경운동가인 슈락시바라사 박사님이 함께 한다.

●인도 성지순례 및 수자타아카데미 견학

2001년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제 12차 인도성지순례가 있다. 실무자를 포함하여 총 130여 명의 순례단이 8대 성지를 따라 부처님의 출생부터 열반까지의 발자취를 느끼고 올 것이다. 순례기간 중에는 수자타아카데미 7주년 기념식에 맞춰 3박 4일간 수자타아카데미 견학코스도 기획하고 있다.

북한지원사업

●북한 후원물품 전달 - 도드람 양돈조합, 파파리노, 앙떼페, 레노마, 모다까리나, 현대택배

도드람 양돈조합에서 돼지고기 통조림 6000캔과 돼지기름 1500캔의 후원품을 보내와 지난 12월 1일 부산항을 통해 라진으로 보내졌다. 또한 11월 28일 아동복지제작업체인 파파리노 서양물산은 어린이 의류 4262점을, 아동복지 레노마를 출시하는 서문어패럴과 앙떼페가 각각겨울용 의류 8426점과 아동복 118벌, 모다까리나 아동복에서 394점을 북한 어린이 돕기에 써달라며 제이티에스에 기증했다. 이 물품들은 '현대택배'의 운송후원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져 북한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법륜 스님 몽골 현지답사

제이티에스 이사장이신 법륜 스님이 2001년도 몽골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논을 갖기 위하여 지난 12월 14일 한국을 출발하여 12월 21일 중국 실무자들과 함께 몽골로 향했다. 울란바토르를 거쳐 초이발산으로 들어가 몽골 현지상황을 보고 12월 25일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국내 사업

● 청소년 심성수련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는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심성수련이 있었다.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의뢰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이명륜 선생님의 안내 하에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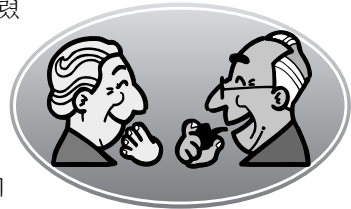
● 실직자 심성수련 평가 워크숍

지난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제이티에스가 실시한 실직자와 실직노숙자를 위한 심성수련(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워크숍이 12월 19일 정토회관에서 열렸다. 주최측과 진행자, 참가자들이 참여한 이 워크숍에서는 수련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수혜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모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 연양 '어르신 한마당' 개최

12월 28일 울산시 연양읍에서 노인잔치가 열렸다. 농촌 소외 노인들을 찾아가 노년의 외로움을 같이 느껴보고자 마련된 이번 잔치는 부산 정토 법당의 실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하였다. 2001년에는 연양읍 두서면 내 화리에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인 노인 그룹 홈이 들어설 전망이다.



● 제이티에스 정기이사회 개최

2000년 11월 30일 제9차 제이티에스 정기이사회가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0년도에 대한 사업보고와 2001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안 인준이 이루어졌다.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0년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어린이 결연

211-02142-11 이혜경
 211-02143-11 이덕의
 211-02144-11 이호순
 211-02145-11 배영균
 211-02146-11 신민영
 211-02147-11 고윤경
 211-02148-11 이순향
 211-02149-11 김은영
 211-02150-11 백진구, 윤선주
 211-02151-11 황은식, 김미경
 211-02152-11 박미덕
 211-02153-11 고순남
 211-02154-11 이인성
 211-02155-11 전은미
 211-02156-11 박신호
 211-02157-11 이수림
 211-02158-11 정희택
 211-02159-11 황귀숙
 211-02160-11 강희순
 211-02161-11 강효영
 211-02162-11 서창규, 신영자
 211-02163-11 신예슬
 211-02164-11 송혜석
 211-02165-11 장문선
 211-02166-11 정정오
 211-02167-11 지휴스님
 211-02168-11 주한섭
 211-02169-11 안민화
 211-02170-11 박주아
 211-02171-11 박진선
 211-02172-11 설상용
 211-02173-11 김인숙
 211-02174-11 이주옥
 211-02175-11 김연정
 211-02176-11 이매향
 211-02177-11 황미숙

211-02178-11 강정수
 211-02179-11 조혜진
 211-02180-11 이영희
 211-02181-11 민속례
 211-02182-11 이재현
 211-02183-11 김복남
 211-02184-11 황현주
 211-02185-11 민덕홍
 211-02186-11 고영순
 211-02187-11 이영은
 211-02188-11 universian
 211-02189-11 이순옥
 211-02190-11 강금수
 211-02191-11 인꼭스님
 211-02192-11 최한실
 211-02193-11 장효란
 211-02194-11 김미희
 211-02195-11 조혜진
 211-02196-11 이성숙
 211-02197-11 공현미
 211-02198-11 이기호
 211-02199-11 명조스님
 211-02200-11 정상오
 211-02201-11 백승이
 211-02202-11 안두영
 211-02203-11 유영선

인도결연

111-02452-14 김부경
 111-02453-14 이미정
 111-02454-14 박계영
 111-02455-14 김희정
 111-02456-14 조재형
 111-02457-14 안은영
 111-02458-14 최진구
 111-02459-14 이지은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 111-02460-14 이영희
- 111-02461-14 인성스님
- 111-02462-14 안소연
- 111-02463-14 차미리
- 111-02464-14 권혜련
- 111-02465-14 노춘자
- 111-02466-14 박주임
- 111-02467-14 박대근
- 111-02468-14 양명수
- 111-02469-14 강복술
- 111-02470-14 최성달
- 111-02471-14 손평자
- 111-02472-14 배정옥
- 111-02473-14 서은경
- 111-02474-14 김점애
- 111-02475-14 방인복
- 111-02476-14 정혜숙
- 111-02477-14 김정자
- 111-02478-14 박도훈
- 111-02479-14 하정선
- 111-02480-14 박애순
- 111-02481-14 홍원선
- 111-02482-14 강환순
- 111-02483-14 류계선
- 111-02484-14 차미희
- 111-02485-14 문정자
- 111-02486-14 최필선
- 111-02487-14 박순생
- 111-02488-14 성각스님
- 111-02489-14 장승욱
- 111-02490-14 최해달
- 111-02491-14 박월숙

단체결연

- 212-00186-11 정은숙
- 212-00187-11 펜타시스템 아티잔 동우회

- 212-00189-11 최용재 치과의원
- 212-00190-11 보름달
- 212-00191-11 인헌중학교 통일돼지 팀
- 212-00192-11 한백 교회
- 212-00193-11 대판시 종업원노동조합
하수도지부
- 212-00194-11 양산안과
- 212-00196-11 황주용, 황수재
- 212-00197-11 영근터
- 212-00198-11 영축산 사람들

특별후원금

- 일본중앙공투(NAW) : 336,000₩
- 대판시 종업원노동조합 하수도부청년회:22,400₩
-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 1,118.45 \$
- 푸른누리 최한실 : 200만원
- 동녘교회 : 245,850원
- 최재원 뮤직토크 : 363,000원
- 청안사 주지스님 : 100만원
- 인천 인일여고 : 63,150원
- 대우자동차 사무 노조위원회 : 15,480원
- 광주 조대여고 봉사반 : 25,900원
- 안성 정토법회 : 1,100만원
- 대구법당 : 100,000원
- 서창규, 신영자 : 100,000원
- 하근수 : 100만원
- 최해달 : 100,000원
- 익명 : 100만원
- 익명 : 1,000만원

물품후원

- (주)서양물산(파파리노 아동복) : 4,262점
- (주)새난(양떼떼 아동복) : 118벌
- (주)서문어패럴(레노마 아동복) : 8,426점
- (주)가배어패럴(모다까리나 아동복):394점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2. 31 현재 (※ 미결연된 곳입니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2. 31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2. 31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2. 31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0. 12. 31 현재





한 해를 보내며...



◆ 항상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법륜 이사장님, 대북지원 담당하시는 윤기희 이사님, 홈페이지 관리하는 김나영씨, 국제부의 박지현씨, 그 외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정상 사진을 못 찍어서 섭섭.....

청소년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애경입니다. 청소년들과 늘 함께 하기에 많은 마음이 유지되도록 생활합니다. 나날이 만족할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들뜨지 않은 평양 속에 있습니다.

- 왼쪽 두번째

소식지랑 그 외 잡다한 일 하고 있는 이 샘입니다. 분별심에 프탈릴 때 도 많은데 계속 나오는걸 보면 뭐가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길...

- 왼쪽 첫번째

새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그리운 이를 만나 내리는 눈을 보면서 학장의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고마운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속에 항상 따스한 관심 보여주시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운한 일 모두 잊고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회원관리부 최대원심(오른쪽 두번째)

사무국장 이지현입니다. 올 한해 참 많은 일을 했고 특히 북한 돕기에 있어 농업, 유치원 탁아소, 고아원 지원등 참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JTS멤버와 후원자님 모두 따뜻하고 아름다운 새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 앞 중앙

JTS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게 제 명예(?)를 걸고 이 쓰지않게 제 명예(?)를 걸고 감사(?) 잘 하겠습니다.

- 맨 오른쪽

인도성지순례를 담당하는 이순희입니다. 부처님의 자취를 느껴보기 위해 사각작업이 이렇게 복잡함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나 아닌 다른이들이 하는 것을 받아 볼때는 당연하고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JTS를 떠나 다른 모든 점도회 사업을 하시는 모든이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느끼며 매사에 감사합니다.

- 뒤 중앙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후원하시는 단체나 후원인께서는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북핵어린이를 살리는
결연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금 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지로번호 : 6921361
국민은행 086-01-0339-246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이티에스에 기부금을 납부하신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법인세법시행령 42조 1항 1호 타목, 시행규칙 17조 1항(종전 17조 50호), 부칙(1996.3.21) 7조에 의거, 개인의 경우도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연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정기 거리모금 행사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 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품후원

지난해 연말경 몇군데의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구류와 의류, 의약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참에 주십시오!